

해남군, '지속가능한 해남' 본격 추진한다

5년단위 발전 추진계획 방안 수립 지역맞춤 153개 과제 62개 지표 세부 계획 마련해 군정 가치 반영 2024년부터 민관협력 TF팀 운영

해남군이 5년단위 지속가능발전 추진 계획을 수립해 실현에 나섰다.

23일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 1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경제, 사회, 환경 등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제1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첫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2022년 12월 제정된 '해남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에 근거해 지난해 9월 발족했으며 해남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위원회는 당연직인 명현관 군수를 포함해 군의원, 대학교수, 기업체 대표, 시민단체 활동가 등 총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지속가능발전 추

진계획 2025-2029 작성안을 심의·의결하고 해남군 주요 중장기 행정계획에 대한 지속가능성 사전검토제 도입에 대해 논의했다.

추진계획은 지난해 9월 수립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2045'를 바탕으로 해남군의 특성과 실정에 맞춘 153개 정책과제와 62개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포함하고 있으며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해 군정 전반에 지속가능발전 가치를 반영했다.

'사람과 자연이 어울려 미래가 더 살기 좋은 해남'이라는 비전 위에 해남군은 △기후위기 대응과 자연환경 보호 △행복하고 건강한 포용사회 조성 △신성장 경제와 좋은일자리 창출 △포용과 소통의 민관협력 강화 등 4개 전략과 이에 따른 17개 목표를 세웠다.

추진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민관협력 지속가능발전 TF팀을 운영해 전반적인 작성 및 논의를 진행했으며 주민참여단과 분과위원회 운영을 통해 각 분야 관계자와 주민대표의 의견을 적



지난 13일 해남군이 군청 대회의실에서 '제1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첫 정기회의를 열었다. 해남군 제공

극 반영에 실효성을 높였다.

해남군은 향후 2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과 지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해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며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내재화 및 인식 확산을 위해 지속가능발전대학 운영 및 캠페인 송 제작 등 다양한 홍보 활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수립된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지역 정책을 추진해 가겠다"며 "군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남-전연수 기자

강진군, 12만 그루 경제림 육성 편백·황칠나무 등 총 85ha 규모

강진군이 총 5억4300만원을 투입해 총 85ha 규모의 조림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23일 강진군에 따르면 경제적 가치가 높은 수종을 중심으로 산림 경영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조림사업을 추진한다.

편백나무, 황칠나무, 두릅나무, 읍나무 등 총 12만7000본이 식재될 예정이다. 이들 수종은 목재 생산뿐만 아니라 환경적 가치도 높아 지역 산림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진-김윤복 기자

친환경 전기차 보급 참여자 모집 영암군, 1대당 최대 1310만원

영암군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미세먼지 감소 등을 위해 총 190대를 지원하는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참여자 신청을 받고 있다.

23일 영암군에 따르면 환경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친환경 전기자동차는 승용차 100대, 화물차 90대다.

지원금은 승용차 1대당 최대 1310만원, 화물차 1대당 최대 2250만원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신청일 기준 영암군에 90일 이상 계속 주소를 둔 개인(사업자), 법인 등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우선 지원자는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선정되고 지원 물량의 10%는 취약계층, 다자녀 가구,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등에게 먼저 배정된다.

지원 희망자는 전기자동차 대리점과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구매지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해 온라인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의 절차를 따라 신청하면 된다.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암군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보거나 영암군 기후변화대응팀(061-470-2403)에서 안내한다.

영암-한교진 기자

늘어지 파크골프장 본격 조성 무안군, 주민 대상 설명회 개최

무안군은 지난 18일 몽탄면 이산2리 마을회관에서 '무안 늘어지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무안 늘어지 파크골프장은 총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해 영산강 하천구역 내 유희부지(몽탄면 이산리 53-8번지 일원)에 36홀 규모의 파크골프장과 주차장, 부대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군은 2026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며 도비 지원 전환 사업으로 도비 9억원을 확보해 사업에 탄력이 붙었다. 늘어지 파크골프장이 조성되면 무안읍 황토클리닉타운 내 파크골프장, 삼향읍 남악파크골프장과 함께 지역적으로 균형 있는 체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니어층 중심의 폭발적인 파크골프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주민 휴식과 레저 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하천의 친수지구로 지정된 늘어지는 영산강 관광경관 개선 사업과 연계한 하천과의 조화로운 공간 형성으로 무안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무안-김행언 기자

완도군, 귀농·귀촌 참가자 모집 10가구 선발 예정

완도군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2025년 전남에서 살아보기' 1기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전남에서 살아보기'는 도시민들에게 2개월간 농촌 생활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한 사업이다.

완도군에서는 군외면 불복마울과 신지면 울모래마을을 2곳에서 진행되며 총 10가구(10명)를 선발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농촌 이해, 지역 교류·탐색, 영농 실습 등 귀농·귀촌에 필요한 교육과 다양한 체험 활동이 진행된다.

참가 대상은 전남 외 타 지역 거주 도시민이며 모집 기간은 3월5일까지다.

신청은 그린대로 누리집(<https://www.greendaero.go.kr>)을 통해 하고, 자세한 내용은 완도군청·그린대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완도-정태영 기자

선박교통관제센터 안전 점검 서해해경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정장 이명준)은 다음달 6일까지 약 1개월간 봄철 해빙기를 맞아 소속 VTS(선박교통관제센터) 5개소(목포, 군산, 완도, 여수 2개소)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해빙기를 맞아 기온상승으로 인한 지반약화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설물 피해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점검으로 철탑, 옹벽, 울타리 등의 구조물과 레이더, 안테나, 비상전원시설 등의 안전사고 요인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중대재해법 관련 외부 용역사 안전 관리 및 교육 실시 여부도 점검하고 즉시 조치가 가능한 미비점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바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목포-정기찬 기자



무안군 삼향읍 새마을부녀회들이 지난 18일 읍사무소 일원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무안군 제공

무안군 삼향읍 새마을부녀회, 환경정화 활동

무안군 삼향읍 새마을부녀회(회장 권숙희)가 지난 18일 삼향읍사무소와 삼향농협 일원에서 대대적인 환경 정화 활동에 나섰다.

23일 무안군 삼향읍 새마을부녀회에

따르면 이날 새마을부녀회원과 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해 곳곳에 쌓인 낙엽과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고 겨우내 쌓인 묵은 때를 제거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권숙희 새마을부녀회장은 "앞으로 각

마을에서 릴레이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하여 깨끗한 마을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은영 삼향읍장은 "평소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펼쳐오신 새마을부녀회에 감사드리며 행정에서도 주민과 적극 소통해 살맛 나는 지역을 만드는 데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안-김행언 기자

강진군,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 준수 당부

비누 이용 올바른 손 씻기 등

강진군이 최근 겨울철 대표적인 식중독인 노로바이러스와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전국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23일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 장관감염증 표본감시 결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수가 지난 11월 1주차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달 4주차 469명에 달해 최근 10년 내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노로바이러스와 함께 장관감염증으로 분류되는 로타바이러스 또한 작년 동기간 대비 105%의 증가세를 보여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통상 노로바이러스는 늦가을부터 초봄

까지 영유아를 중심으로 유행하고 주로 오염된 음식이나 물에 의해 감염되며 환자의 구토물, 대변에 접촉한 손을 통해 전파된다. 감염되면 12~48시간 이내에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경우에 따라 복통, 오한, 발열이 동반될 수 있다. 대부분 2~3일 지나면 낫지만 면역을 유지하는 기간이 짧아 과거에 걸렸던 사람도 재감염될 수 있다.

로타바이러스감염증 역시 노로바이러스와 감염경로 및 증상이 비슷하고 기저귀나 장난감 등에 묻은 오염물로부터 손과 입을 통해 쉽게 전파되기 때문에 신생아실,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등에서 감염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들 장관감염증 예방을 위해서는 △손 소독제보다 비누를 이용해 30초 이상

올바른 손 씻기 △식재료는 흐르는 물에 세척해 85도 이상에서 1분 이상 충분히 익혀 먹기 △환자가 사용한 공간이나 물품 소독하기 △칼, 도마는 소독 후 사용하기 등이 중요하다.

노로바이러스 환자는 증상이 사라진 후 48시간까지 등원, 등교 및 출근을 자제하고 화장실 등 생활공간을 다른 가족과 구분하는 게 바람직하다.

화장실에서 배변 후 물을 내릴 때 비말을 통한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선 변기 뚜껑을 닫아야 한다.

노로바이러스는 감염을 막는 예방백신은 없지만 로타바이러스의 경우 백신으로 예방이 가능한데 영아의 경우 국가 예방접종으로 무료 접종이 지원된다. 강진-김윤복 기자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호남 유일 20년 연속 선정 신뢰할 수 있는 신문 전남일보